광주에 ‘경증 응급실’ 만든다

〈輕症〉

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전문의 24시간 대기

市, 23일부터 1곳 시범운영 뒤 확대 검토

광주에 야간과 공휴일 응급의료센터로 몰리는 경증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증응급센터’가 이달 안에 설치될 전망이다. 기존 응급의료센터는 시급한 의료처치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경증응급센터는 위급함 정도는 떨어지지만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해 열악한 응급센터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광주시는 8일 “4일까지 전남대·조선대·광주기독병원·서남대병원·남광병원·하남성심병원·첨단종합병원 등에 설치된 6곳의 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받았으며, 심사를 거쳐 15일 경증응급센터 선정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르면 오는 23일부터 본격운영될 경증응급센터의 운영비 1억7500만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병원은 전문의와 진료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광주시가 경증응급센터 개설에 나선 것은 야간이나 공휴일에 모든 환자가 응급센터로 몰리면서 실제로 시급한 의료처치가 필요한 환자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응급실을 찾는 환자 수는 2006년도 809만9000명에서 2008년도 890만600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 중 80%는 경증환자로, 이로 인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응급실 이용객의 60%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24시간 운영되는 경증응급센터가 신설되면 경증 또는 단순 처치만 해도 되는 환자와 즉시 처치가 필요한 응급환자를 분류해 응급실 대기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의 야간, 공휴일 응급센터체계로는 의료진이 응급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필요한 시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우선 1곳에 대해 시범운영을 한 뒤 확대시킬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동구 황금동 콜박스 사거리 중앙의 표지석이 부서진 채 방치돼 미관을 해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부서진 표지석

광주 황금동 등 훼손 방치 … 보행자들 ‘눈살’

광주시 구도심의 대표적인 거리 중 한곳인 동구 황금동 콜박스 사거리와 황금로 사거리의 표지석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돼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8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0월 현 위치에 설치된 이 표지석들은 콜박스 사거리와 황금로 사거리를 알리고, 각 방향을 표시하는 이정표 역할로 제작됐다. 그러나 재질이 깨지기 쉬운 화강석으로 제작된 탓에 그 동안 수 차례의 파손과 자잘한 보수가 반복됐지만 여전히 훼손 상태로 남아있다. 도시 미관을 해칠 뿐더러 보행자들의 사고 위험까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콜박스 사거리 보도에 원판형식으로 박혀있는 지름 1m50㎝ 크기의 표지석은 광주천변 방향을 알리는 부분 전체가 깨져있어 표지석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콜박스 사거리 표지석보다 2배 가량 더 큰 황금로 사거리(옛 런던약국 사거리) 표지석은 중앙 부분이 가로 1m30㎝·세로 60㎝ 이상이 파손돼 있으며, 5㎝ 이상 깊게 패여 있다. 콘크리트로 보수한 흔적이 남아있으나 이마저도 다시 움푹 파여 보행자들은 피해다니기 일쑤다.

이와 함께 콜박스 사거리에서 황금로 사거리 구간에 설치된 옛 광주읍성지 폭원(幅員, 일정 지역의 넓이를 표현)을 알리는 8각형의 보도블럭도 일부분이 깨져나간 채 방치되고 있다. 역시 콘크리트 복구 흔적이 있으나 깎이고 패여 그 기능을 잃고 있다.

황금로 사거리 인근의 한 상인은 “시야가 어두운 밤에는 하이힐을 신은 여성들이 훼손된 표지석 사이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을 자주 봤다”며 “최근에는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넘어져 큰 사고가 날 뻔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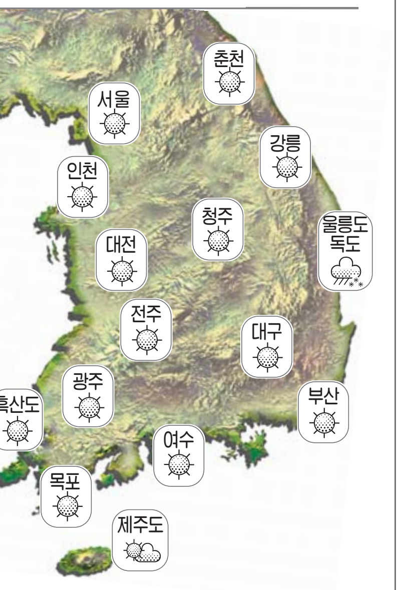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53분 / 해짐 18시 34분 · 달뜸 08시 37분 / 달짐 22시 43분

새벽 추위 엄습

대부분 지방의 아침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다.

광 주	구름조금	-1/8℃
목 포	구름조금	0/7℃
여 수	구름조금	1/8℃
나 주	구름조금	-3/9℃
완 도	구름조금	0/8℃
구 례	구름조금	-2/9℃
해 남	구름조금	-3/8℃
장 흥	구름조금	-3/9℃
순 천	구름조금	0/9℃
영 광	구름조금	-2/6℃
진 도	구름조금	-1/9℃
전 주	구름조금	-3/7℃
군 산	구름조금	-2/6℃
남 원	구름조금	-5/7℃
흑산도	구름조금	1/6℃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먼바다	서~북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먼바다	서~북서	1.0~1.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보통	관심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먼바다	서~북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먼바다	북서~북	1.0~2.0m

	밀물	썰물
목포	04:35 16:34	09:46 21:53
여수	11:11 23:42	05:04 17:1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0(목)	11(금)	12(토)	13(일)	14(월)	15(화)
날 씨	맑음	맑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비	구름많음
최저/최고	-2/10	0/11	1/13	3/15	7/12	3/6

꽃샘추위 금요일 풀려

다음주 초 다시 ‘쌀쌀’

봄을 머뭇거리게하는 꽃샘추위는 금요일께 물러가 포근한 주말이 예상되지만, 다음주 초에 비가 내린 뒤 또 다시 추워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과 전주기상대는 “9일 광주와 전남·북 지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낮에는 대체로 맑겠으나 아침에는 기온이 대부분 영하로 떨어져 춥겠다”고 8일 예보했다.

9일 광주와 전남·북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5도~10도 분포를 보여 평년보다 3~4도 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조선대 세종학당, 베트남 경찰에 한국어 가르친다

한국 교민 업무 담당 호찌민시 공안 12명 대상

조선대학교가 베트남 호찌민 인문사회과학대학에 개설한 세종학당에서 호찌민시 공안경찰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친다.

2008년 10월 설립된 조선대 세종학당의 주요 수강생은 한국기업 취업 희망자, 남편을 한국인으로 둔 베트남 다문화 여성, 교사, 학생 등이었으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교육은 8만여 명에 달하는 호찌민시 한국교민 업무를 담당하는 공안경찰들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호찌민 경찰청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한국어 실무 교육은 이달 14일부터 9월 2일까지 24주 과정이며, 우선 호찌민시 경찰 1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향후 교육을 확대할 전망이다.

교육은 일상생활과 실무 등을 통해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해 상호간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

황병하 조선대 대외협력처장(외국어대학 아랍어과)은 “호찌민 공안경찰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한다는 점에서 베트남에서의 세종학당 위상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교육은 베트남 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의 선도적 모델케이스로 베트남 교민사회 발전과 양국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선대는 호찌민대학에 2008년 10월 첫 한국어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을 설립해 130여명을 배출했으며, 1년 2기 수료제로 현재 20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쉽게 찾는다

특별법 주내 국회 통과

‘피싱’ 사기를 당해 금융회사에 돈이 묶인 피해자들이 각종 제약때문에 피해금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지적〈광주일보 2010년 1월 28일 6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개선방안이 시행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이번 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를 통한 ‘메신저피싱’으로 사기를 당한 사람이 금융회사에 곧장 피해 사실을 알리면 피해금 지급이 정지되고 신속히 돈을 되찾을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됐다.

앞으로는 특별법에 근거해 3개월 안에 돈을 찾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사기 피해자의 요청으로 금융회사가 피해금을 송금받은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하면 금감원은 이 사실을 2개월 동안 공고하고, 이의가 없으면 정해진 절차를 밟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식이다.

다만, 범인이 돈을 빼가면 돌려받는 게 어려워지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 예방하는 게 최선이라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연합뉴스

목포·순천·여수 평준화 고교 학생 선발

1지망 50%·절반은 교육청서 강제 배정

1지망 학생들을 100% 선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목포와 순천·여수 지역 평준화 고교의 학생배정 방식이 크게 바뀐다. 1지망에서 50%를 선발하고, 나머지 50%는 교육청에서 강제 배정하는 방식이다.

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고교 평준화 배정 방안을 마련해 현재 목포와 순천·여수지역 중학교 2학년이 입학하는 2012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새 배정 방식은 50%는 중학교 내신성적을 9등급으로 나눠 각 학교에 상위부터 하위까지 일정 비율로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기존 선지원 추첨배정 방식이다.

현행 ‘선지원 후추첨’ 방식은 교육청이 학생을 강제배정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학교에서 1지망 학생들을 100% 선발 가능하다. 일부 학교는 이런 점을 이용해 우수학생 유치전을 펼쳐 특정학교 ‘쏠림과 기피’ 현상이 심화됐다. 또 평준화 근간이 흔들리는 등 부작용도 드러났다.

그러나 새 제도 시행을 둘러싸고 학부모 단체들은 평준화 정착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인 반면, 도의회와 일부 사학은 학생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반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